

# 삿대질·몸싸움에 ‘필리밥스터’... 난장판 된 국회 “협치 끝”

## 국회 통과 과정 이모저모

‘협치’를 화두로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삿대질은 물론 가벼운 몸싸움까지 뒤섞인 난장판을 연출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가까워지자 여야가 감정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해임안 표결을 앞두고 뒤늦게 시작된 대정부질문이 막바지로 치달은 지난 23일 오후 7시50분께, 의원총회를 하고 있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닥쳤다.

이들은 사회를 보는 정세균 국회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정 의장 쪽이나 야당 의석을 향해 삿대질을 쏘아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는 국무위원들에게 밥 먹을 시간을 주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에게 식사 시간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의장님도 식사 하지 마셨어야죠”라며 “의장은 밖에 나가서 밥 먹고는 말아야”라며 격앙했다. 이에 ‘Mr. 스마일’로 불려온 정 의장은 노기를 띠며 발끈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의 시간을 늦춘데 이어 국무위원들의 ‘장광설 답변’을 유도,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김밥 돌아가면서 드시면

## 국무위원들 ‘장광설 답변’

### 정진석 “부끄러운 줄 알라”

### 정세균 “당신이나 잘하라”

되조”라며 “새누리당 의총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라고 응수했다. 정 원내대표가 “국회에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소리를 치자 정 의장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민주 의원들도 단상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와 정 의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야당 의석에선 새누리당과 국무위원들이 저녁 식사 시간을 핑계로 필리밥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한다는 뜻의 ‘필리밥스터’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우 원내대표가 정 원내대표를 설득하며 “밖에서 둘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도 일어났다. 40분 가까이 단상 앞에서 불쌍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서 여야 의석에서 도 험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했다.

결국 정 의장은 3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끼니를 해결하고 오도록 했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오후 9시 속개, 10~12번째 질문자에 이어 마지막 13번째인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오후 10시20분 질문을 시작했다. 이우현 의원이 이후 1시간 30분 넘게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장은 이날 밤 11시57분 차수변경을 공식화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단 앞으로 몰려와 정 의장을 강력 성토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에게 다가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차수변경은)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종료하고 24일 오전 0시18분 본회의를 다시 시작,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에 강력 반발,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어 실시된 투표에서는 참가 의원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이 지난 24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을 행사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차수변경을 하며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강제 종료시키자 강력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안 통과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탄 한 팀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각오로 일을 한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저도 항상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앞으로 혼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기적의 드라마를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사다리에 올라가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조금도 부끄러워 않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국민을 감동시키는 명품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 對野 전면전

### 국회의장 윤리위 회부 등 초강수...야권 “국감 파행은 민심에 대한 도발”

#### 여야 끝없는 대치 정국 급냉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사실상 대야(對野) 전면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행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25일 계획했던 벼 베기 행사도 취소하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위원회를 소집해 정 의장 사퇴결의안 제출과 앞으로 국회 운영 일정에 대한 지도부 간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의장과 야당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면서 격앙된 당내 분위기를 반영했다.

새누리당은 25일 밤 10시 의원총회를 갖고 국감일정 거부를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당은 정세균 의장의 행태에 대해 작금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에 책임은 집권 여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상화 방안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것도 사실이고, 해임건의안을 구실로 정부의 실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권은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전면거부키로 한

데 대해 ‘민의에 대한 역주행’이자 ‘민심에 대한 도발’이라며 즉각 국감에 정상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임건의안 의결로 두 야당은 ‘거야’의 힘을 과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여당이 독주할 경우 언제든지 ‘무력시위’를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는데 대한 부담도 안겨 됐다. 협치를 주문한 20대 총선의 민의와 배치되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대안세력임을 내세워 정부·여당에 실망한 여론 지지층을 끌어당겨야 하는 야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우상호 “박정희 독재정권도 해임안 받아들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 장관은 역대 국무위원 중에서 6번째로 해임안이 통과된 장관이 됐다.

앞서 제헌국회 이후 현 20대 국회까지 모두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이 중에서 임철호 농림부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장관(1969년), 오지성 내무부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장관(2003년) 등 5명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해임안이 통과된 후 모두 장관

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장관을 해임하거나, 해당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 해임건의안의 직전 사례인 김두관 전 장관 해임안의 경우 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임 장관은 해임안 의결 다음날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재정권 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도 받아들여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도 국회 의견을 중시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오기·오만·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Korea Sale FESTA 기간중

##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직거래 장터 열린다



**Korea Sale FESTA 행사 기간 중에 부산, 광주(10.1~3), 경기-고양(10.2~4)에서,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2016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할인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9.29~10.31)”의 일환으로 준비된 행사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유통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와 만나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제품할인판매 이외에도, 참여업체 수출상담회, 유명 비자회 개최, 복권이벤트, 가족단위 참관객 대상 이벤트 등 쇼핑과 동시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10월 초 부산·광주·고양에서 “2016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전” 개최

〈할인전 일정표〉				
지역	장소	기간(규모)	참여제품군	이벤트
부산	백스코	2016.10.1(토) ~ 10.3(일) (220부스)	생활용품, 가구, 패션, 가전, IT, 인테리어, 의류, 주방용품, 아이용품, 식품 등	수출상담회, 요일 별 특정상품 특가전, 개최지역 유명비자회 유치, 신석순 장관 이벤트, 구매고객 이벤트, 복권 이벤트, 플랫폼 이벤트, 가족단위 참관객 대상 이벤트, 대표 할인상품 베스트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6.10.1(토) ~ 10.3(일) (150부스)		
고양	일산문화공원	2016.10.2(일) ~ 10.4(화) (80부스)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 중소기업진흥공단

행사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전화(02-6678-9334) 또는 ایم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